

브레이크댄스 배틀의 사회적 의미*

**
이우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브레이크댄스 배틀 탄생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III. 배틀의 사회적 의미
	IV.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무용교육학회 학술심포지엄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서울예술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실용무용전공) 부교수

논문투고일 : 2022.01.30.

논문심사일 : 2022.02.03.

게재확정일 : 2022.03.01.

The social significance of breakdance battle

Lee, Woo-jae · Seoul institute of the arts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feature of breakdance battle and appreciate its social significance. It was derived from battles of gangs but it is based on the culture looking for respect and peace. It features ‘Judge Show’, a performance of judges to prove what they have achieved before they judge. The participants in a battle can raise objections by ‘Call Out’, a culture that they call the judges out to compete. ‘Respect’ is a culture to understand the values of the others and accept what they have got. It represents the judges and the participants evaluate each other and they have a horizontal relationship rather than vertical because they all want to be appreciated as dancers. The battle stage becomes a channel of communication through which caution and hostility melt down and they feel the sense of unity as dancers. Its culture seeking respect and peace has a significant potential to be socially broadened. Its transparency and fairness also breaks down unreasonable conditions of the society and presents chances that they are all evaluated under the equal. The study might guide us to find out respect, peace, horizont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transparency and fairness socially and significantly emerged from breakdance battle.

<key words> breaking, bboying, hiphop, street dance, dance battle, bboy, bgirl

<주요어> 브레이킹, 비보잉, 힙합, 스트리트 댄스, 댄스 배틀, 비보이, 비걸

1980년대 한국은 군사정권의 독재로 인해 자유로운 표현이 억압받던 시기였다. 이시기 ‘브레이크댄스breakdance’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브레이크 댄스는 뉴욕 브롱스의 빈민가에서 태동하고 발전해 온 힙합문화로 기득권 사회인 주류문화에 대한 반항과 투쟁으로 “기성사회에 대한 저항”(김기국, 2012:27)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과 공부를 뒤로 한 채 힙합 풍의 옷차림을 하고 오직 춤에만 매달리는 비보이들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불량 학생들이자 문제가 집단이었다”(김기국, 2012:11). 이처럼 “브레이크댄스를 춘다고 하면 자유분방한 표현과 모습이 타인에게 불량하다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다가오던 시대가 있었다”(이우재, 2021:21). 이러한 일탈과 저항 그리고 자유분방한 이미지에서일까, 한국은 브레이크댄스를 춘다고 하면 사회 ‘부적응자’, ‘따따라’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비보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2002년 브레이크댄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으로 저항과 일탈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았던 비보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댄서로 국위선양하고 중·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자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가치로도 부상하고 있어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처럼 브레이크댄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로 거듭난 이유에는 내재한 무엇인가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댄스에는 다양한 특징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특징으로 ‘배틀battle’을 꼽을 수 있다. 브레이크댄스에서 탄생한 배틀은 상대와 춤으로 실력을 겨루는 형태를 말하며, 전반적인 스트릿 댄스 배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브레이크댄스에 있어 배틀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한 이유는 “브레이크댄스는 일찌감치 배틀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왔기에”(박한솔, 유환일, 임다연, 2021:515).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와 아시안게임, 올림픽도 모두 배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브레이크댄스 배틀은 연구의 가치로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뉴욕 브롱스의 최하층 빈민가에서 탄생한 브레이크댄스 배틀에 어떠한 사회적 의미가 있기에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로 거듭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궁금증을 토대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의지가 바로 연구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더불어 브레이크댄스 배틀에 내재한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에서 파생된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안창용(2018)은 스트릿 댄스 배틀에서 심사위원의 경험적 특성과 판정 기준 그리고 배틀의 가치와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다. 이주영, 박현옥(2017)은 스트릿 댄스 배틀 문화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배틀 문화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거시적인 스트릿 댄스 배틀의 특성만을 연구한 것으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브레이크댄스 배틀의 탄생 배경과 사회적 의미로 고찰한 것은 미흡하다. 따라서 브레이크댄스 배틀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한 것은 국내 브레이크댄스 연구의 학문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 / 브레이크댄스 배틀 탄생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1. 배틀 탄생의 사회적 배경

“1960년대 중반 이후 뉴욕의 사우스 브롱스 The South Bronx 지역에 또 하나의 슬럼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 이유로 뉴욕시는 브롱스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값싼 사우스 브롱스에 가난한 유대인, 푸에르토리코, 흑인이 모여 빈민층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청소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갱단에 가입하였으며 오직 범죄와 마약 판매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김상우, 2012:94-95).

사우스 브롱스의 백인 갱들은 유색인종을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유색인종은 이에 맞서기 위해 갱들을 결성하게 된다. 처음에는 백인 갱들에 대한 방어가 목적이었지만 점차 이해관계가 얽힌 전쟁으로 번져나갔으며, 살인과 복수가 반복되자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971년 브롱스 갱단의 리더들이 모여 평화 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갱단의 치열한 싸움은 종식되고 갱단에 소속되었던 “발산하지 못

해 공허해진 젊은이들의 에너지는 외부로 향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모하고 있었다”(Chang, J., 2005, 유영희 역, 2014:81-107).

브롱스의 갱단 생활은 폭력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갱단의 치열한 싸움이 점차 평화적으로 해결되어간 점이 특이하다. 그러한 지저에는 분명 폭력을 대체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김상우(2012:99-100)는 70년대 이후 갱단에 가입된 구성원 대부분이 10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블록파티를 다니며, 춤과 음악에 매료되어 갱단 활동의 흥미를 잃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갱들에게도 춤이나 주먹 대신 비보이 배틀, DJ 배틀, 랩 배틀 등을 통해 승부를” 가리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힙합문화로 발전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유태균, 정은영(2009:264)은 “비보이B-boy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배틀 battle’은 1970년대 미국 뒷골목에서 태어난 힙합문화”라고 얘기한다. 갱들의 생존과 자존심이 걸린 세력다툼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춤으로 대신하는 ‘배틀’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브레이크댄스 “배틀은 이름과 달리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Chang, J.은 “비-보이 스타일의 대부분은 갱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공격적인 스타일로 이루어진 싸움의 춤으로서 “춤추는 것이 곧 싸우는 것이”라고 비보이 해리스는 말했다고 한다. 또한 초기 갱단이 브레이크댄스 배틀로 폭력을 대신할 때 “때로는 댄스만으로 싸움이 해결될 때도 있었고 거꾸로 댄스 배틀에서 싸움으로 변지는 일도 있었다. 비-보잉은 공격으로서의 스타일, 즉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인 것이다”(Chang, J., 2005, 유영희 역, 2014:183-184)라고 비보이 트랙 2가 증언하고 있다. 이우재(2019:76-77)는 브레이크댄스 “동작의 특징은 싸우듯이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이 발전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과 싸우는 형태를 춤으로 상징화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춤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댄스 배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2. 브레이크댄스 배틀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레이크댄스는 무대 미학적인 춤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갱단의 싸움에서 탄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현장에서 탄생한 춤으로 유연성과 즉흥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체계적이기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본능이 묻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창용(2018:173,190)은 “배틀은 다른 무용장르에선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대항관계가 실현되면서 승패가 나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배틀은 자신의 춤을 이용해 인정받고 싶은 ‘인정투쟁의 활동’이라고” 판단한다. 이주영, 박현옥(2017:167-168)은 “배틀 문화는 타 장르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자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항상 소외된 약자였던 흑인들이 인종, 계급, 종교, 사회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춤을 사랑하는 열정과 노력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했던 정신에서 기원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이유는 배틀은 “어떤 경쟁구조보다도 수평적 형식을 추구하고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개방적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레이크댄스에는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모두 동등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틀이 점차 무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특징이 바로 ‘저지 쇼judge show’와 ‘콜 아웃call out’, ‘리स्पек트respect’ 문화이다. 배틀에 나타나는 세 가지 문화는 브레이크댄스와 스트릿 댄스에만 있는 특징이다.

1) 저지 쇼judge show

‘저지 쇼’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심사위원의 공연이 된다. 심사위원은 배틀을 심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의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댄서이다. 그러나 배틀 심사위원은 다른 무용대회의 심사위원과 차이점이 있다. 바로 심사위원은 심사 전에 자신의 실력을 춤으로 증명해 보이는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창용(2018:173)은 “저지쇼는 저지가 직접 무대에 나와 선보이는 춤을” 뜻한다고 얘기한다. 이주영, 박현옥(2017:163)은 “배틀 문화에서 judge란 심사위원을 말한다. 심사위원이란 참가자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우의의 경력과 실력의 권위자로서 평가를 위해 참여하지만 배틀 문화에서는 배틀 전 심사위원 역시 참가자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저지들은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댄서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길 원하며 그러한 예술적 행위를 통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콜 아웃call out

‘콜 아웃’은 배틀 참가자가 심사위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위원에게 배틀을 신청하는 문화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지 쇼로 인해 배틀 참가자와 심사위원의 동등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사위원은 배틀 참가자를 평가하지만, 이후에는 참가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배틀에 참가한 댄서들은 심사위원에게 동등한 댄서로 의식하는 경향도 있지만, 경력과 실력을 존중한다. 여

기서 중요한 점은 동등한 관계로 성립된 배틀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서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배틀 참가자를 평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실력을 평가하고 판정 기준에 납득할 수 없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틀 참가자의 이의 제기는 배틀이 끝난 후, 심사위원에게 즉석에서 배틀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 판정은 바뀌지 않는다. 배틀 참가자의 콜 아웃 이유는 심사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지만, 심사위원과의 배틀을 통해 댄서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실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이다. 콜 아웃 배틀은 정해진 규칙과 승패가 따로 없으며, 배틀이 끝난 후, 다른 참가자들의 배틀과 심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실제로 콜 아웃은 2009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브레이크댄스 세계 대회인 ‘Battle Obsession’에 참가한 비보잉크루가 심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콜 아웃 하여 심사위원들과 배틀한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콜 아웃은 “b-boy 배틀 세계에서 흔하지 않지만 참가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해석될 수 있다”(안창용, 2018:186). 이 외에도 간혹 국내외 소규모와 대규모 배틀대회에서 콜 아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콜 아웃 문화는 모든 예술 장르의 대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브레이크댄스 배틀에만 있는 특징이다.

3) 리스펙트respect

‘리스펙트’는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이며, 콜 아웃으로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배틀할 때도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이우재(2016:256)는 배틀 문화는 댄서들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다. 또한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문화이기도 하다. 여기서 인정하는 것을 힙합에서는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RESPECT(리스펙트)’이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춤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소통으로 나아가며 상대의 실력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을 리스펙트 문화의 정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리스펙트는 댄스 배틀이 이루어지는 동안 공격적인 동작을 표현하고 위협하더라도 배틀이 끝난 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인정하는 문화로 평화의 뜻을 담고 있다”(이우재, 2019:77). 비록 배틀이 갱단의 싸움에서 탄생하였지만 춤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리스펙트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III 배틀의 사회적 의미

브레이크댄스 배틀은 갱단의 싸움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갱단의 싸움으로 치닫는 폭력을 춤으로 대체했다는 점은 사회적인 의미로써 해석의 여지를 준다. 그 당시 비보이들은 정규적인 교육을 받는 환경보다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 삶의 의지를 통해 폭력을 춤으로 대체하고 평화로 나아간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사례이다. 특히 이것은 더 이상 폭력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범죄에서 벗어나 춤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폭력에서 춤으로의 이행은 브레이크댄스라는 춤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처럼 폭력을 춤으로 대신하여 싸운 배틀이 평화를 위한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쌓아온 지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회적 선택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상대와의 대결로 인해 평화로 이어지는 상황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배틀은 상대가 자신에게 춤으로 강렬한 자극을 주면 이기기 위해 더욱 더 강렬한 춤으로 응대한다. 따라서 배틀은 상대를 공격도 하지만 상대를 고무시켜 더욱더 멋진 춤을 발휘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상대의 실력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실력도 향상되는 상생의 의미와 경쟁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로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와 계급을 넘어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평등한 관계는 배틀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과도 동등한 관계로서 사회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 배틀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같은 무대에서 춤추는 행위를 통해 댄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소통에 이르게 된다. 심사위원은 언젠가는 배틀 참가자로서 무대에 서게 되며, 배틀 참가자는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면 심사위원으로서 무대에 서게 된다. 이로써 배틀 참가자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권위는 탈권위적으로 나타난다. 이것 또한 배틀 참가자와 심사위원과의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고 수평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

댄스 배틀은 “즉각적인 저지의 거수에 의해 승패가 나누어지고 있다”(안창용, 2018:186). 이것은 “심사위원들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거나 합의점을 찾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직관에 의해서만 심사 결과를 발표”(이주영, 박현옥, 2017:164)하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은 직관에 의해 심사 결과를 배틀 참가자 앞에서 바로 발표하기 때문에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심사위원은 승패의 결과를 배틀 참가자에게 공개하고 참가자들도 그 자리에서 승패를 결정한 심사위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 발표는 배틀 문화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필요사항이기도 하다. 입시, 취업, 지원사업선정 등은 우리에게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과 관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객관적으로 현실화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심사자와 지원자의 수직적인 관계로 투명성과 공정성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존재한다. 또한 심사 기준에 미친 학력, 사회적 지위, 계급, 이해관계 등은 더욱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배틀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적인 의미로 이어진다.

이주영, 박현옥(2017:164-165)은 댄스 배틀에 대해 “적나라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배틀의 시스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틀의 구조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선천적·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인종, 계급,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이 소멸됨으로서 진정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우재(2019:81)는 배틀 무대는 소통의 창구로서 때론 “상대방과의 격렬한 대결구도를 지녔지만, 대결하고 춤추는 동안 사회계급, 나이, 성별을 잊고 즐기게”되며 자유와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배틀은 경쟁상대와의 대결이지만 춤이라는 공통의 대상을 공유함으로써 무대는 곧 소통의 창구로 작용하게 된다. 소통의 창구 안에서는 경계와 적개심은 점차 사라지고 화해와 이해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이, 직업, 권위, 권력, 지위, 계급 등은 무너지고 댄서라는 존재로 화합해 간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억압과 강요는 사라지며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으로 이루어진 존중의 미를 나타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틀의 개방성은 투명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공정성을 이르게 된다.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은 사회적 지위, 계급, 학력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무너트리고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사람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추구하며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나아가는 사회적 의미로 나타난다. 이로써 배틀의 특징은 사회적 불합리와 단절을 넘어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제시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배틀의 사회적 의미로 나타난 특징이 사회에 적용된다면 획일화된 사회에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스승과 제자의 수직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수평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선배와 후배 등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수직관계가 형성되면 자유로운 소통에 어려움이 따른다. 수직관계는 상대에 대한 존중보다는 권위를 앞세워 불편함을 초래한다. 수직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통해 탈권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수평관계로 나아가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배틀의 경쟁 무대와 삶의 무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배틀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는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삶의 경쟁에서도 적개심과 권위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으로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 해소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틀의 사회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댄스 배틀은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나타내며, 사회적으로는 타인과의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서 존중과 자유로운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브레이크댄스 배틀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듯이 비보이들은 브레이크댄스 배틀 문화를 만들고 즐기면서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극복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춤과 배틀을 놀이로서 즐기지만 하는 개념을 넘어 생존을 위한 삶의 돌파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돌파구로 작용했던 것이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브레이크댄스 배틀이 놀이문화를 넘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의미로 넓혀질 수 있었다.

특히 브레이크댄스 배틀은 갱단의 싸움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존중과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배틀의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인 동시에 댄서로서 인정받고 싶은 존재이며 권위와 권력의 수직관계를 넘어 수평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배틀 무대는 소통의 창구로서 경계와 적개심은 화해와 이해의 장으로 나아가고 댄서라는 존재감으로 일체감을 이루며 존중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배틀의 사회적 의미로 나타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 나이, 권력, 권위를 넘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틀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적 입장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은 수직에서 수평관계로 나아가는 가능성으로 확대된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직관계는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며 상호 간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탈권위적인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나아간다면 현시대의 세대 간 갈등과 소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브레이크댄스 배틀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현실에 적용한다면 획일화된 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함께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지녔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브레이크댄스 배틀을 놀이문화로 인식하여 배틀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배틀에 내재한 사회적 의미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브레이크댄스 배틀의 사회적 의미로는 탈권위적, 존중, 평화, 수평관계, 소통, 투명성, 공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 김기국(2012), “대한민국 비보이 크루의 대중성과 차별성”, 국제비교한국학회, **비교한국학 20(1)**, 9-32.
- 김상우(2012), **스트리트 댄스**, 서울: 좋은땅.
- 박한솔, 유환일, “브레이크댄스의 올림픽 스포츠 종목 편입에 관한 쟁점 탐색”,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27(3)**, 509-535.
- 임다연(2009), “스트리트 댄스 배틀 저지(judge)의 판정경험과 가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연구학회지 36(2)**, 171-198.
- 안창용(2018), “스트리트 댄스 배틀 저지(judge)의 판정경험과 가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연구학회지 36(2)**, 171-198.
- 유태균, 정은영 (2009), “비보이댄스 체험의 현상학적 접근”,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261-278.
- 이우재(2016), **힙합, 춤은 진화한다**, 서울: 돈을새김.
- _____(2019), “브레이크 댄스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관한 탐구”,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27(3)**, 73-83.
- _____(2021), “브레이크 댄스 탄생배경에 나타난 긍정 심리학”,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77-91.
- 이주영, 박현옥 (2017), “스트리트 댄스의 배틀 문화적 특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2)**, 157-169.
- Chang, J.(2005), *Can't Stop Won't Stop: A History of the Hip-Hop Generation*, 유명희(역, 2014), **힙합의 역사**, 경기: 음악세계.